"쇠고기 개방 없이 FTA 타결 없다"

커틀러 美 수석대표 'FTA-쇠고기' 연계 재확인

민주당 압력 영향인 듯… "6차회담 상당한 진전"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22일 한미간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한국 시장이 충분히 재개방되지 않으면 FTA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한국측에 분명히했다"며 쇠고기 문제와 FTA를 연계할 뜻을 거듭 확인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전화회견을 갖고 "이번 6차 FTA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7차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쇠고기 협상에 관한 의제에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곧 이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가 농축산물 단체들의 강한 압력에 직면, 조지 부시 행정부에 한국의 쇠고기 재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 농림부는 "쇠고기 검역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인만큼 FTA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같은 강한 요구를 감안할 때 내달초로 예상되는 양국간 쇠고기 검역 기술적 협의가 한미 FTA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어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의 쇠고기 재개방 협상은 FTA 회담과는 별도 채널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간에 큰 인식차를 보이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미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 문제가 FTA 협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이번 협상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주 서울에서 관세분야 협상이 열리는데 개성공단 문제가 제기되는 협상장은 그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6차 회담에서는 시장 접근을 포함, 환경 및 다수의 여타 이슈들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7차 회담은 내달 12일이 시작되는 주에 미국에서 열리게 될 것이며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커틀러는 "앞으로 회담을 몇차례나 더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7차회담을 한 뒤 추가 회담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7차회담 때 이 문제를 한국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군 증파 첫날 이라크 잇단 폭탄 테러…100여명 사망

잇단 차량 폭탄 테러로 100여명이 숨진 이라크 바그다드 중심부 시아파 지구인 밥 알-샤르키 시장에서 23일 주민들이 사망자 가운데 자신들의 친척이 있는지 찾고 있다. /AP=연합뉴스

美 학교 '요코이야기' 교재 중단 잇따라

한인사회, 미 전역 조직망 구축 사용 중단 운동 가속화

미국 중학교 교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요코이야기(원제 far from the bamboo grove)'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한국인을 가해자, 일본일을 피해자로 잘못 묘사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 책의 교재 사용을 중단하는 미국 내 학교들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교의 가톨릭 메모리얼 중고교는 이 학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온 '요코이야기'를 교재에서 제외시키기로 지난주 결정했다.

앞서 매사추세츠주의 사립학교인 프렌드십 아카데미도 지난해말 중학교 과정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요코이야기'를 교재 목록에서 빼기로 했다. 이 학교는 영어담당인 스티븐 월랙 교사가 이 책의 역사적 사실과 표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더 이상 교재로 쓰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로드 아일랜드주의 모세브라운 중고교도 지난해말 '요코이야기'를 중학생 과정 영어교재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밝혀졌고, 뉴욕의 라이컨트리데이 중학교 역시 7학년 허보은양이 이 책을 배우지 않겠다며 일주일간 등교를 거부한뒤 지난해 9월 교재금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요코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저자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 거짓임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 책의 학교 교재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운동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인 학부모들은 이 책의 교재사용 금지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보스턴과 뉴욕, 워싱턴, 서부지역 등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조직망을 구축하고, 웹사이트 등을 통한 정보교류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백상어 입속에서 살아난 사나이

호주 40대 상어 눈 찔러 사지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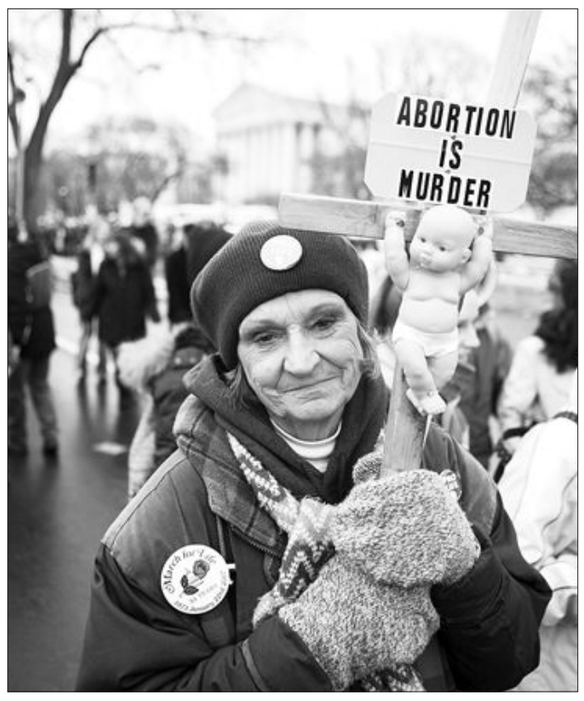
호주에서는 백상어의 기습 공격으로 자신의 머리가 백상어 입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남자가 있어 화제다.

이 남자는 3m 길이의 상어가 자신의 머리를 덥석 물어 통째로 입안에 집어넣는 바람에 잠수할 때 얼굴에 쓰는 마스크가 부서지고 코가 깨지는 상처를 입었으나 상어의 눈을 찔러 사지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에릭 네러스(41)는 23일 오전 케이프 하우 인근 바다에서 다이버 복장을 하고 바다 속에 들어가 전복을 잡다 백상어의 공격을 받았다.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던 동료 데니스 루비키스는 상어가 네러스의 머리를 한 입에 물어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가 부서지고 코 부분이 깨졌다면서 "상어는 그의 머리통을 완전히 입안에 삼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네러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상어의 입 속에서 빠져나왔고, 속수무책으로 배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던 그의 아들(25)이 얼른 팔을 뻗어 아버지를 배위로 끌어 올렸다. 헬기 구조대의 한 대변인은 네러스가 헬기 구조대원들에게 상어의 눈을 찔러 상어 입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낙태는 살인입니다" 한 낙태 반대자가 22일 낙태를 합법화한 '로 앤 웨이드 판결' 33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진행된 대규모 시위에 참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부시 지지율, 닉슨 이후 최저 33%"

WP·ABC 공동 여론조사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도가 임기 현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조사 이래 최저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ABC 공동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 부시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33%로, 부시 임기이래 최저였던 지난해 5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응답자의 71%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봤다.

22일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서도 부시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34%로 부시 대통령 임기 중 최저를 기록했다.

2008년 대선 주자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선 공화당의 경우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공화당 지지층에서 32%의 지지를 받아 선두를 차지했고, 이어 존 매케인 상원의원 26%,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9% 순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이 세계에 부정적 역할" 49%

BBC 25개국 여론조사 미국의 대외 이미지가 아프리카 국가들 외에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BBC 조사 결과 나타났다.

BBC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인도 등 세계 25개국 국민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이 세계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년전 조사 때는 36%, 2년전 조사 때 40%였다. 이에 반해 부정적 역할을 한다는 응답이 이번 조사에선 49%로 나타났다.

미국민들마저 미국의 힘이 '선(善)'한 역할을 한다는 답변은 지난 3년간 71%, 63%, 57%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대해선 25개국 평균 73%가 반대했다. /런던AP=연합뉴스

潘총장 "대북 유엔사업 최우선 검증"

3개월 일정 내·외부 감사 추진

유엔이 북한 당국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엔개발계획(UNDP)을 포함한 대북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문제와 관련, 유엔 자금사업과 유엔 기금 및 프로그램의 활동 전반에 대한 내·외부 감사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첫번째 검증 대상으로 대북 유엔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유엔은 22일 성명을 통해 반 총장이 유엔 기구의 장들의 모임체인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엔 회계감사단에 현금 처리 및 직원고용의 독립성, 지역사업의 점검 등의 현안과 관련된 국가에서의 유엔 및 유엔 기금·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의 요청이 유엔 업무조정위원회와 회계감사단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대북 유엔 사업 운영에 관한 첫 보고서가 3개월 일정으로 진행돼 올해 상반기에 열리는 유엔 제61차 총회 2차 속개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엔본부=연합뉴스

전액무료 국비훈련생 모집

모집직종	정보통신설비
모집기간	2007년 1월 16일부터(30명 정원 한도내 선착순 모집)
취득자격	정보통신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모집대상	-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야간대학(방통대 포함)·야간대학원·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실업자 - 취업보호대상자 - 비진학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모자보호대상자 - 장애인 - 일반주부(3개월전에 구직등록한 주부)
특 전	- 수강료 전액 무료 - 교재 무료 제공 - 교통비 지급(매월 50,000원→6개월 총 300,000원) - 무선선정직종수당 지급 (매월 200,000원→6개월 총 1,200,000원) -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련분야 100% 취업
모집방법	학교교무실 상담 및 방문(건강보험카드 지참)
문의전화	224-4560, 224-4580
버스노선	• 전남여고 봉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 문화전당역(구 도청) 진월07, 첨단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암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 예술의 거리 입구 풍암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위치: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內 ★http://www.hdedu.co.kr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홈짝수 주야간반 수시 접수중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300여명 모집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교정직 특채 2007년 3월~5월중 실시 8000여명 모집예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www.kjkimyoung.co.kr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편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 2월 1일 =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2월 1일(목)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2월 1일
개설과목 : 영어/언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7-8088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암(癌)등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각 지역별 지점모집
KSCB 한국줄기세포은행 광주지사 (062)373-3475 (세포치료)
이래 지정 병원과 상담하세요
www.koreacellbank.com
지정병원
전남동부지점(순천, 여수, 광양) 061-743-3475 • 광주 광산 첨단하나신부인과 973-0910 이창의의원 953-7582 고운의원 951-9011 다나가정의학과의원 955-1888 소촌연합의원 943-5875 박가정의학과의원 941-0531 남구 한중가정의원 675-8075 장내과의원 225-1616 동구 본정형외과의원 236-3501 온누리가정의원 234-7571 북구 한솔내과의원 575-0075 성보의원 526-7772 양지정형외과의원 571-2277 삼각연합의원 251-0042 장수연합의원 062-266-7598 희망의원 573-5451 현대정형외과 529-1101 국연근피부과의원 573-9975 한빛신경외과의원 574-7582 서구 퍼스트의원 384-0044 다나통증의학과의원 651-7578 한사랑통증의학과의원 365-7582 호암산부인과의원 681-0800 • 전남 광양 정외과의원 792-8561 나주 이필수외과의원 332-9800 목포 성모의원 242-5554 청호의원 274-7077 아름다운의원 274-8275 순천 금당병원 720-3500 영광 김기영내과 353-7521 장성 삼성의원 395-3800 김내과의원 393-7533